

4

1988년 5월 20일

- 1면 그림 「해방세상」
- 2면 뿌리내리는 광주문화
삶과 함께하는 미술 - 무신도
- 3면 · 그림을 배웁시다 - 만화Ⅱ
- 4면 · 우리그림소식, 지역소식
미술계 소식

우리그림

발행인 홍대봉/발행처 1립사랑동우회 우리그림/발행일 1988년 5월 20일 / 주소 경기도 안양시 안양2동 836-11, 전화 44-8942

- 신바람 나는 그림
- 함께 누리는 그림
- 참 삶을 지향하는 그림



해방세상

황용훈

이땅 한반도의 계절변화는 세계 어느곳 보다도 뚜렷하다고 한다.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봄은 땅속 깊숙히 새싹을 감추고 있던 겨울로부터 그 순서와 조짐을 어김없이 거치면서 이제 봄의 완성, 그결정체인 5월에 와있다. 5월은 모든 꽃들이 만개하여 그 열매를 준비하는 계절이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철조망을 가로지르며 다니는 온갖 새들과 꽃향기처럼 우리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과 민주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한껏 기대해본다.

뿌리내리는 광주문화

광주항쟁의 진상규명 및 보상문제, 책임자 처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8년여 간을 지속해오면서 대학가의 축제행사나 집회에 어김없이 선보여온 '광주 문화'는 이제 '지하문화, 비공식 문화의 태두리'를 넘어 폭넓은 대중과의 만남이 시도되고 있다. 제1회 민족극 한마당에서는(3월3일~4월30 예술극장 미리내) 〈금희의 오월〉이라는 항쟁 당시 한 투사의 삶과 죽음이 내용으로 공연되었고, 운동가요로 대학가에서 불리워지던 〈님을 위한 행진곡〉 〈5월〉 등은 지난해 6월 거리를 뒤덮은 민주화의 시민대열에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이제는 누구나 친숙한 노래가 되었다. 또한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80년 초에 금서화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널리 읽혀지고 있다.

이러한 광주문화의 대중적 확산은 단순한 의미전달이나 선동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처절했던 민주항쟁의 아픔과 화해를 가슴속에 아로새겨 새로운 차원의 국민적 실천으로 계승되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이제는 그림에서도 순수니 비순수니 하는 무의미한 논쟁은 접어두고, 역사의 흐름속에서 인간답게 살려는 생존의 함성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광주항쟁의 한복판에서 함께 싸우며 절규했던 화가 홍성담씨의 판화작품 대동세상Ⅰ과 그의 수상록 중의 한귀절을 소개하면서 어떠한 예술활동도 인간적 삶과 유리될수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아! 더불어 사는 것이란 이토록 처절하게 아름다운 것인가, 참으로 신명나는 세상,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주면 내줄수록 마음이 더욱 든든해지는 세상, 얼마나 눈부시게 진실한 얼굴들이었던가?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된 자 없이 온통 길거리에 나서서 처음 마주친 얼굴끼리도 눈인사를 주고 받으며 스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귀중하게 생각되면 비로소 어떤 무엇보다도 사람이 귀한 것임을 확인케 해준 그 허벅진 세상.

삶과 함께 하는 미술

무신도

예술은 종교의 시너라는 말이 있다 가령 불교를 위해서는 사찰건축, 불상조각, 불구공예, 불교회화 등이 그러하며 서양미술에 있어서도 건축, 조각, 회화 등이 종교의 영향 아래서 변화 발전되어 온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우리의 민화도 한민족이 정착하면서 부터 갖고 있던 정령신앙, 동물숭배 등의 원시적 신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것이 조선 후기까지 농경사회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문화의 틀로서 자리잡게 된다 그러므로 민화는 단순한 감상용의 그림이 아닌 부적처럼 주술적 기능을 가진 그림으로 전통가옥의 벽장문에 붙거나 산사나 비각 등에 걸려 그 기능을 발휘했다 특히 민간신앙 속에서 형성되어 온 무신도는 종교화로서의 구체적 의미를 지닌다.

무신도란 어떤 그림인가

무신도란 무당이 신앙하는 신의 화상으로서, 특정한 신의 용모를 집중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신의 초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신도는 일반적인 초상화와는 다른 종교적 신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무당이 신앙하는 신의 화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종교화와 달리 무속이라는 한정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무신도는 흔히 무화(巫畵)나 무속화(巫俗畵)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그 이름들은 다소 다른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무화는 무당이 전용하는 모든 그림을 말하는 넓은 뜻으로 쓰이며 무속화는 무화에다가 굿하는 장면 등의 무속을 그린 일반적인 풍속화까지도 포함된다 이에 비하여 무신도는 신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보다 구체화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무신도는 단순한 신의 초상만은 아니다 신이 내린 무당의 집에는 언제나 그 가장 조용하고 정결한 곳에 신을 모신 신단이 마련되어 있다

신단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 방의 3면 벽에 무신도를 걸고 그 밑에 송판으로 선반을 매어 촛대와 옥수그릇, 방울, 신칼, 삼지창, 점통 등의 무구를 올려놓으며 선반 밑에는 장구, 징, 무신복을 담은 고리를 넣고 붉은 천으로 방바닥까지 가리운다 신단에는 제의를 하거나 문안을 드리거나 그 외에 신사에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만 출입이 허용된다

무당들은 이 신단에 신이 거처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무신도는 그 신의 실재적 신체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곧 신으로 신성시된다

무신도의 특성

무신도는 대부분 생명주나 발이 고운 무명바닥에 그려서 족자로 벽에 걸도록 만들어졌으며 그 크기는 가로 60cm 세로 110cm 정도의 것이 보통이나 이보다 크거나 작은 예외의 것도 있다 채색은 적색, 청색, 원색이 기본이 되어 여기에 백색, 흑색, 녹색 등의 물감이 보조로 사용되었다

무신도는 거의 중부와 북부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강신무가 중북부지방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신무는 신이 내려서 된 무당이기 때문에 신단을 봉안하기 위해 무신도를 소지하지만 조상대대로 혈통에 따라 무당이 되는 세습무는 그렇지 않은 수가 많다 그래서 전형적인 무신도는 주로 중북부 지역에서 발견된다

무신도는 누가 그렸는가

무신도의 양식이 언제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또 어떻게 정착되었는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기록상으로는 고려 중엽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에 보면 무당이 자택의 벽에 단청으로 그린 신상을 가득히 걸어놓고 있다는 기록이 나왔다 이것은 오늘날 볼 수 있는 무신도와 같이 원색으로 그려진 무신도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기록과 오랜 무속의 역사로 미루어 보면 무당이 무신도를 소지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 훨씬 이전부터의 일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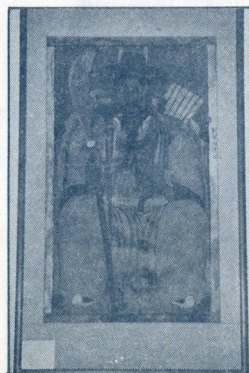
그렇다면 무신도는 누구에 의해서 그려졌을까?

최초에는 무당 자신이 그의 종교적 체험을 그림으로 옮겼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것은 오늘날도 신이 내린 무당이 솥을 들고 벽에 글씨 같은 것을 쓰면서 중얼거리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해진다

다음 단계에서는 무당이 자신의 체험을 그림에 숨씨가 있는 사람에게 대신 표현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현재의 무신도 중에도 이 단계의 무신도가 많이 있으며, 특히 제주도의 「내왓당」에 봉안된 10위의 무신도는 전혀 불화의 체취를 풍기지 않아 순수한 민간화공에 의해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번째 단계는 불화를 전문으로 그리는 중(金魚)에게 부탁해서 제작한 그림으로 발전해 왔을 것이다 이것은 현재 무속에 종사하는 무당들이 무신도를 금어에게 부탁해서 제작하는 예로서 짐작 할 수 있다 이렇게 무신도가 세째 단계로 접어들면서 원래 첫째, 둘째 단계의 민간적 화풍이 점차 불화풍으로 바뀌어지고 이것이 굳어져 오늘날과 같은 불화풍의 무신도가 된 것으로 믿어진다

무신도는 우리 조상의 오랜 삶과 그 기원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민간신앙의 구체적 발현이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이고 순수한 민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제주 「내왓당」의 무신도. 본토의 것과 달리 불교의 체취가 없다.

2. 산신도. 산신도의 원류는 단군상으로서 모든 산신도는 깊은 산속 신단수 아래 호랑이를 데리고 앉아 흰깃부채를 들고 있다.

3. 최영장군도. 장군도와 같이 역사적 실존인물을 신성시하여 숭앙하기도 하는데 특히 최영장군이 많이 신앙되는 것은 원통하면서 비극적으로 죽은데 대한 동정적인 추모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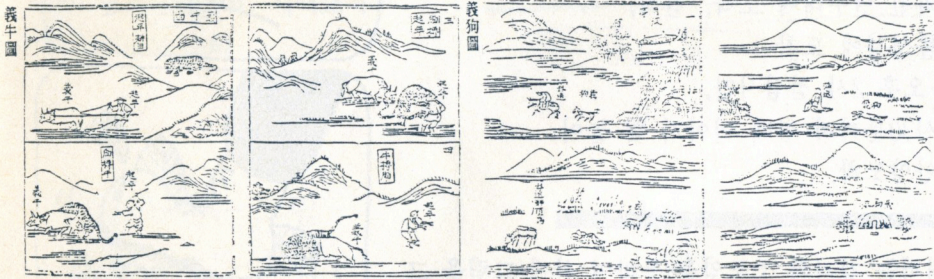
4. 별성마마. 천연두나 홍역을 쫓기 위한 신으로 호구아새라고 불리기도 한다.

3. 만화 2

만화 I (우리그림 소식지 3호 3면)에서 만화의 개념과 형식과 내용, 만화 그리기 자세와 쉬운 만화 그리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부터 좀더 심화된 과정으로 한칸 및 네칸만화 그리기를 익혀 민중 만화가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우리들의 삶을 표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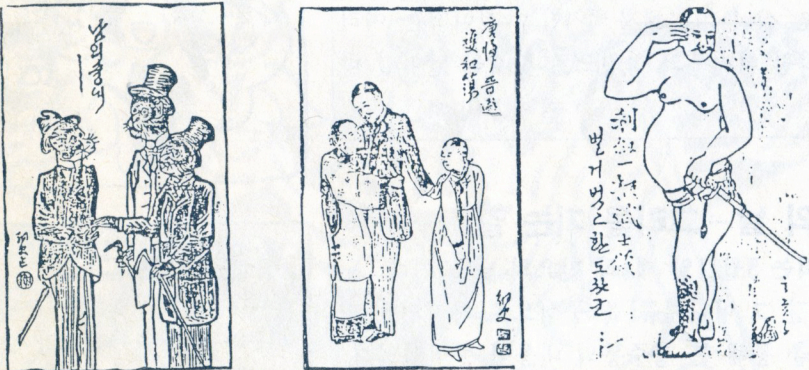
만화의 역사

우리 만화의 역사적 맥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불교경전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大寶積經」의 「三菩薩供養圖」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불교, 유교 경전을 도상화 시킨 작품들이 많았는데 「義狗圖」 「義牛圖」등 네칸 만화의 형식을 완전하게 갖춘 그림이다



「義牛圖」와 「義狗圖」, 1745년(영조 21년) 목판본으로 간행된 「義烈圖」에 실려 있다. 기승전결의 계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으며 형태상 현재의 네칸만화와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근대에 와서 신문의 간행에 힘입으면서 주로 한칸만화의 형식을 띄어 민족의 현실을 반영하였다. 즉 통렬한 비판의식으로 친일 매국노를 풍자하였으나 검열에 의해 많은작품이 삭제되거나 먹면처리 되다가 1910년 「대한민보」가 폐간되면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경성일보」에서 통치, 지배이데올로기 선전수단으로 만화가 쓰이기 시작했다. 20년대 이후 〈시대만화〉 〈동아만화〉 〈지방만화〉등 거의 독자투고에 의해 이루어진 만화들이 놀라울 정도로 동시대 현실을 예리하게 반영하고 있다



구한말 시대현실을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신문만화, 왼쪽 친일 매국노의 일본 인과의 담합을 풍자한 「남의 숭내」, 가운데, 친일 매국노가 한복입은 여인을 거절하고 일본여성을 품에 안은 모습. 오른쪽, 「벌거벗고 환도찾군」 군대해산령과 그에 따른 대규모 투쟁이 전개되던 시기에 당시 군부대신 이병무를 공격하는 만화.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 전통은 오락만화의 양적 팽창과 탄압에 의해 사라지게 되고 신문사의 상업주의 속성을 배경으로 '우습고도 재미있게'라는 슬로건으로 민족만화적 전통을 통속만화로 떨어뜨렸으며 그것이 지금까지 일반화 되고 있다

해방공간의 만화는 반공의식의 고취를 목적으로 쓰였으며 대부분이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황폐화된 조국에 이상적 서구를 동경하도록 유포한다



‘보통사람’을

보통, 보통, 보통.....

자처하던 별난사람 노태우씨가 부정선거를 통해 집권한지도 벌써 세달이 넘었다.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주변부의 이야기를 가십의 형식으로 다룰 의도는 없으나 우선 지면이 할애된 분량에 따라 새로 등장한 문화현상(?) 한가지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보통’이라는 진정 평범하기만한 단어가 분수뿔차리고 난동을 부린다. 보통사람을 필두로 보통시대, 보통고릴라, 보통여자, 보통생활..... 가히 ‘보통’의 전국시대라 할만하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보통(普通) ① 널리 일반에게 통함. 특별하지 아니하고 예사로움’이라고 그 뜻이 적혀 있다. 그 본연의 의미에 대입해보면 요즘의 ‘보통’은 확실히 고유의 의미를 훨씬 멀리 뛰쳐나간듯하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의미의 왜곡이 아니라 이 왜곡된 의미의 선정주의(센세이션얼리즘)적인 사용이다. 우리는 일전에 영화 ‘산딸기’ ‘깊은 산속 웅달샘’ 등에 의해 기존의 신선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일순에 ‘욕욕을 자극하는 매개물’로 전락되는 경우를 보았다. 이들은 모두 인간을 대상화,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 선정주의가 저지르는 언어에 대한 범죄이다.

1954년에는 유통구조가 만화방 위주로 바뀌어 만화역사의 중요한 맥이 이루어지나 작가의 질적 고려도 없이 모작이 성행하게되어 이러한 현실은 80년대까지 악순환을 유발케 한다

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주로 성인 만화가 부흥하여 스포츠, 섹스, 기업을 배경으로 하는 출세지향주의와 허구의 현실을 창조하여 현실인식을 마비시키는데 공헌하였다

이러한 현실 위에 나타난 만화운동은 현실의 본질을 옳게 꿰뚫고 서구적 문화침략의 대항체로 성장하려는 움직임에서 출발하여,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새로운 만화의 매카니즘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이라 하겠다

한칸만화, 네칸만화 그리기

민중언론매체에는 거의 빠짐없이 한칸 및 네칸만화가 실리곤 하는데, 이런 종류의 만화는 시사감각과 센스로 순발력을 발휘하여 해학과 풍자로 그려진다. 일일신문 시사만화는 특히 정치적 탄압국면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여 신문의 기사, 해설, 논평 등에서 다룰수 없는 내용도 교묘히 다루어 간접적 인물풍자의 효과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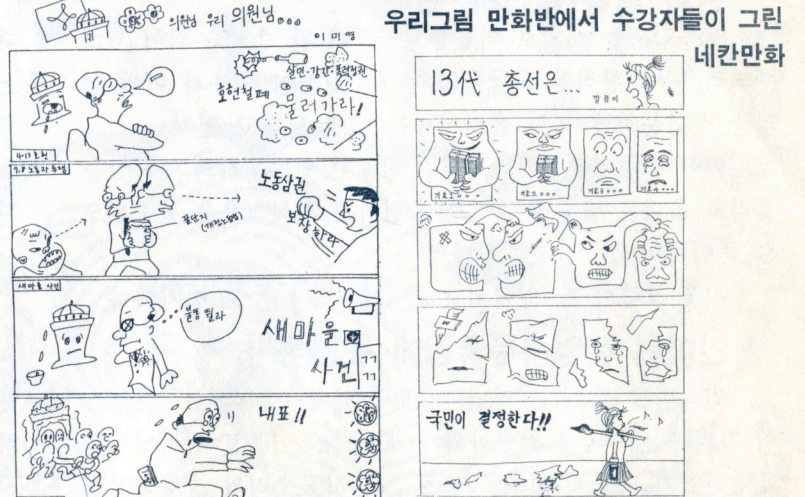
만화를 그리는데는 그림을 다루는 기법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감각의 표출이 더욱 중요하다. 항상 필기구와 연필을 가지고 다니며 연속적인 사고와 순발력을 길러 신선한 발상을 찾아낸다

그림의 소재는 멀리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주위의 무엇 하나도 소재가 안되는 것은 없다. 신문 뉴스에서 소재를 택할 때는 예리한 눈으로 기사를 분석하여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다수 삶의 구성원인 서민대중의 입장에서 공감되거나 교육될 수 있도록 그리며 그 사건이 잊혀지기 전에 발표하여야만 공감대를 크게 형성할 수 있다

풍자만화는 주로 정치적인 문제가 다루어지며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먼저 그 사람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어야 하는데 사진을 스크랩해 두었다가 그 인물의 특징을 여러번 되풀이 그리게되면 풍자적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다

네칸만화는 서민대중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기, 승, 전, 결의 이야기 형식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는 단편 및 장편만화의 구성형식과 같다

이러한 한칸 및 네칸의 단형만화는 단순화와 과장을 본질로 하여 순간적 웃음을 자아내게 하므로 효과가 개인적으로 끝나거나 지속적이지 않는데 그한계가 있으나 만화 소모임을 만들어 여럿이 함께 창작하고 감상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통한다면 그 한계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며 앞으로 만화운동적 차원에서 가능성의 열린 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12 12 군사쿠데타, 5 17집권음모와 광주학살, 컴퓨터조작 부정선

거를 통한 재집권등 우리 현대사의 악역을 두루거친 장본인이 ‘보통사람’을 자처하는 것은 확실히 선정적이다. 그러니 그의 집권을 지켜본 우리사회의 진짜 보통사람들이 ‘보통’이라는 말을 선정주의적으로 사용 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또 곰곰히 생각해 보면 ‘보통사람’이라는 의도적인 곡해는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지구상의 모든 독재권력이 통치권력의 창출과 유지를 위해 언어의 의미전화에 진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성계의 군사쿠데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용비어천가’가 만들어졌고 히틀러의 나찌당이 민족주의를 곡해했고 이승만이 ‘인민’이라는 단어에 붉은색을 칠했다. 독재권력의 속성이 그러한한 그 본질적 문제의 해결을 방기한 채 그에 의해 파생된 언어의 저질화에만 신경을 국한시킬 필요는 없는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한가지, 언어라는 것이 철저하게 우리 삶의 본질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생각할 때, 언어에 의해 매개되는 문화의 질(質)을 높이려는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을 어느 상황에서건 변함없이 요구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노태우씨가 저지른 온갖 범죄에다 ‘모국어 불경죄, 혹은 모독죄’ 한가지를 더 첨가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묘하게 입술을 씹룩여본다

광주항쟁계승을 위한 5월문화제

광주 5월항쟁이 8년여가 흐른 지금, 그 진상 규명과 보 상문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은 어김없이 다가와 그토록 처절하게 아름다웠 던 숭고한 영혼들을 더이상 매장시킬 수 없기에 안양 문화단 체와 민주 청년단체가 주최가 되어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5 월 문화제를 만들었습니다 애국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 랍니다

행사내용 사진전, 5월 시와 그림전.

제4회 민요의 날, 광주민중항쟁 계승제

일 시 1988년 5월 21일~22일까지

장 소 비산동 비산교아래 고수부지

미술강좌 점차 소모임으로

지난 4월 초에 개설된 미술강좌가 각반별로 마무리 단계 에 있다 수채화, 민화, 만화, 판화 등 4개의 강좌 중 민화반 은 초급을 마치면서 바로 소모임으로 모임의 형태를 전환하 여 자율적으로 중급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며, 다른 3개반은 현재 중급강좌를 진행 중이다

우리가 만든 우리그림의 날

지난 4월 23일에 제2회 회원의 날이 열렸다. 진행이 지 연되어 마무리가 되지않았던 내용도 많았으나 모인 사람들의 적극적인 자세에서 무난히 치루어졌다. 2회에서는 회원의 주 체적인 참여와 내용진행을 위하여 구성된 준비팀에 의해 내 용이 채워졌고 준비팀은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작업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공유됨을 느낄 수 있어 보람되었다. 행사 이후 준비팀과 간사진과의 평가에서 행사의 내용을 좀 더 충실히 채워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회원의 전체적 인 공감대를 계속 마련한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회수된 설

5월 '우리그림의 날' 관악산 등반

회원들의 친목과 교양을 위하여 회원 스스로 매월 꾸려 가는 회원의 날이 "우리그림의 날"로 정식이름이 붙여졌다 그동안 주위 관심있는 분들에게서 '꼭 회원들만 참석하는 자 리냐'는 질문을 자주 받아왔는데 '우리그림의 날'로 이름을 바꾸어 회원들이 가까운 친지들을 스스럼없이 초대할 수 있 게 하자는 것이다

새이름으로 진행할 5월 우리그림의 날은 관악산 등반으 로 결정되었다 날짜는 일요일인 5월 29일이며 그날의 일정 은 다음과 같다

오전8시 우리그림에서 출발

10시30분 과천 연주대에 도착, 간식,

12시30분 불성사에 도착

12시30분~오후 2시 점심시간,

2시부터 6시30분까지 함께 이야기 및 놀이,

오후 8시 안양도착

우리그림에서는 강좌와 소모임을 통하여 함께 그림을 그 린 사람을 찾고 있다

문지를 통하여 나타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 모임의 활성화, 홍보, 회원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및 미술이론과 회원의 작품활동, 강연, 견학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그림으로써 회원 개개인의 마음과 생 각을 표출할 수 있고, 진실된 문화의 창조에 서로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제3회 우리그림의 날은 등산을 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쉬이 친근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 회원의 의견이다. 회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뜻깊은 날이길 바 랐다.

권애숙(회원)

지역소식

제4회 민요의 날 - 그리움 가는 길

안양 민요연구회는 5월21일 제4회 민요의 날을 연다 노 래곡 "그리움 가는 길 그 어디메쯤"을 중심으로 창작민요 발 표, 덕담 "5월 문학을 통해 본 광주등의 내용이 준비되었다

또 민요연구회는 일반인 초급강습을 개설한다 풍물, 민 요, 놀이 등의 내용으로 5월 30일부터 6월 말까지 주2회 진행 한다 강습비는 회원은 만원, 비회원은 이만원인데 비회원은 강습후 자동으로 회원가입이 된다. (문의 전화 48-1095)

독서회 제2회 독서한마당 준비중

안양독서회는 제2회 독서한마당을 6월19일로 계획하고 있다 독서한마당은 1부 작가와의 만남, 그부 노가바 경연대 회로 구분되며 여기에 발표할 독후감과 노가바를 공모한다

이에 앞서 6월5일에는 제3회 회원의 날이 야유회 겸 사 생대회로 열린다 장소는 부곡저수지이며 비회원도 참가할 수 있다 (문의 46-8929)

미술계소식

판화 한류음 전시·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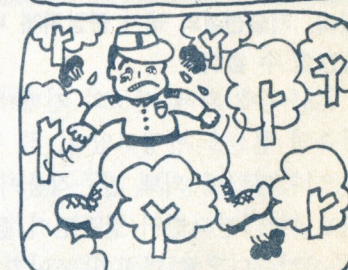
88올림픽을 계기로 미술유통구조가 관 주도도 되어 사대 주위적, 무비판적인 외국문화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이에 발 맞춘 상업문화에 의한 혼란상태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민족미술협의회에서는 진정한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살리고 올바른 대중적 정서를 표현하는 판화작품을 한류음으 로 묶어내어 전시, 판매한다

서울 그림마당, 민에서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이다.

민미협 신임사무국장에 유연복씨

민족미술협의회는 지난 4월30일 임시연석회의를 하였다 이 회의는 사무국장 최민화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열린 것으로, 그 사표수리와 사무국장인 선이 있었는데 청년간사의 추천과 운영위원, 집행위원의 의 결을 거쳐 유연복씨(전총무)가 신임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후원회원모집

우리그림의 뜻에 동의하시는 여 러분의 후원금은 우리 그림 사업 재정에 중요하게 쓰여집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

우리그림의 운영을 위해 회원 여 러분의 정기적인 월회비를 꼭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계좌

국민은행 209-01-0406-531

조흥은행 503-6-220777

경기은행 64-37-845634

예금주 박찬웅

아동미술 전문 교육기관

“이런 어린이를 맡겨 주세요”

- 미술이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는 1~6학년의 어린이
- 미술성적(실기 이론)이 저하되는 어린이
- 장난이 심하고 정서가 불안하며 산만한 어린이
- 유치부 어린이중 미술을 좋아하는 취학전의 어린이

해바라기 유치원과 화랑미술학원은 같은 교육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43-3261 버스운행



관

화랑미술학원

“보통고릴라 팝니다”

주완수 이야기 그림 모음

보통고릴라

그동안 금기시되어 온 표현상의 '성역'의 벽을 부수고 우리시대의 환부를 드러내기 위해 웃음의 칼을 세운 최초의 정치 풍자 만화집

우리그림 회원인 만화가 주완수씨는 위의 책에서 털복숭이 고릴라를 등장시켜 군부독재정권 하 우리들 삶의 본질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



도서 출판 世界

324-7821

* 우리그림 회원에 한하여 할인판매 합니다.

정말 믿어지고 보통 만큼 실을 것이다. 나도!